

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,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펼쳐
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(원장 조경래)은 지난 29일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,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한 대청소·방역, 전기시설 보수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- 청소년수련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설명절을 앞둔 현재 김천시 아포읍 봉산2리 마을을 방문하여 경로당, 마을회관, 취약계층 가정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청소 및 방역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.
- 또한 아포읍사무소를 통해 전기설비가 취약한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을 추천 받아 사전답사 후 전기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콘센트·전선·전등 등 낡고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재능 기부활동도 함께 이어갔다.
- 아울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이 설연휴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설명절 고향에 오지 못하는 봉산2리 어르신들의 가족 및 친지들에게 고향 정취와 안부 등을 전하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곧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.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조경래 원장은 “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전직원이 힘을 합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”면서 “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.”고 말했다.